

『삶의 질』 선진화의



연 하 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다 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한국사회의 모습은 『삶의 질』이 풍요로운 생산적이고 성숙한 사회입니다. 지난 한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성장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최고·최대의 것을 가능한 빨리 성취하는 것만이 지고지선의 목표라는 양(量)의 가치관이 형성·확산되어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71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사회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의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 보건·의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그러면서도 국내외 보건 및 사회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왔으나, 이를 신속히 전달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요 연구내용과 외국 연구기관이나 정보망을 통해서 얻어지는 각종 최신자료들을 모아서 월간 『보건복지포럼』을 새롭게 펴내기로 하였습니다.

『삶의 질』과 관련한 21세기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첫째,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과 진행은 전세계를 지구촌화 할 것입니다. 둘째,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산출의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셋째,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더욱 전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됨에 따라 지역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될 것입니다. 넷째, 남북한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양측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지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견인차가 되고자

이제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함께(福祉) 나아가는(成長) 공동체의 『삶의 질』의 향상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지속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도 균형되게 두어져야 합니다. 질(質)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국민의식의 함양이 요구되며, 각 경제 주체별로 공직윤리(奉仕), 기업윤리(淸富), 근로윤리(勤勉), 소비윤리(儉約)를 정립해 공동체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복지부문에 있어서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개입의 「틀」을 보강하고,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 탄력근무제나 재택근무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연공서열제와 같은 장애요인의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분배의 개선은 교육기회의 균등,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등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제도가 예방·건강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보건·의료계, 그리고 복지부문 종사자들도 환경변화와 정책동향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월간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보건·의료·사회복지부문의 정확한 국내외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안과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연구결과의 신속한 전달, 토론회 내용의 홍보, 국내외 정책동향의 소개, 각종 통계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전문가, 일반인, 그리고 정책당국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언제나 저희 연구원을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Idea 집단’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만들어질 월간 『보건복지포럼』은 『삶의 질』의 선진화에 앞장서는 견인차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